

형태 유형 분석을 통해 본 미스 반 데어 로에의 독일시대 사무소 건축에 관한 연구

김철환*

¹한라대학교 건축학부

Study on Mies' office projects in Germany through an analysis of Formal Types

Chul-Hwan Kim^{1*}

¹Department of Architecture, Halla University

요약 본 논문은 미스 반 데어 로에의 독일시대 사무소 프로젝트의 형태 유형과 그에 따라 형성되는 공공 공간을 분석하는 것을 주제로 삼는다. 사무소 계획안들의 투시도와 도면을 통해 형태 유형의 발생과 변화, 유형과 공공 공간의 관계, 위계에 따른 형태와 공공 공간 구성 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 초기에는 U자, I자 유형을 사용했고 후에 곡선 유형을 도입하여 U자 유형과 함께 형태들로 분절했다.
2. 단순한 형태 유형들 전면에는 진입광장을 계획했고 곡선 유형과 함께 다양한 위계의 중정과 후원을 형성했다.
3. 미스가 여러 시도를 통해 형태 유형과 공공 공간에 대한 생각을 구축해 가던 시기였음을 알 수 있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formal types and public space of Mies van der Rohe's office designs in Germany. The characteristics of the formal types, the relationship between public space and formal types, and the composition of public space were analyzed by hierarchy with perspective drawings and plans. The conclusions were as follows. Mies used the formal types, such as U shape and I shape in his early days. Later, he adopted the curved shape and tried to fragment the forms by combining the curved shape with an I shape.

Mies designed the entry space in front of the simple formal types. The curved shape was used to create various hierarchical courtyards and rear gardens.

The results suggest that Mies developed his own ideas on the formal types and public space utilizing a variety of methods.

Key Words : Mies van der Rohe, Germany, office project, formal type, public space

1. 서론

1.1 연구의 목적과 배경

본 연구는 독일시대 미스의 사무소 건축을 대상으로 형태 유형과 그에 따른 공공 공간의 형성을 분석하는 것을 주제로 삼는다. 그동안 미스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주로 공간론적, 구조 합리주의적 시각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는 그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가 '유니버설 스페

이스'나 마천루 건축의 합리성과 같은 개념에 집중된 것과 맥을 같이한다[1]. 이러한 개념들은 주로 미국시대의 작품들에서 명확하게 나타나는데, 뉴욕 씨그렘 빌딩(1958), 시카고 연방센터(1959~1974), 토론토 도미니언 센터(1963~1969)가 마천루 건축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들은 대도시의 도심에서 단독 혹은 여러 동의 마천루들로 이루어진 사무소 건축으로서 이웃한 다른

*Corresponding Author : Chul-Hwan Kim(Halla Univ.)

Tel: +82-33-760-1273 email: chkim@halla.ac.kr

Received August 21, 2014 Revised (1st September 22, 2014, 2nd October 1, 2014, 2nd October 7, 2014) Accepted October 10, 2014

마천루들이 갖고 있지 않은 독특하게 개방된 공공 공간을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미스의 사무소 건축을 공공 공간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그의 계획적인 전략을 읽어 낼 수 있다면 현대의 도시 건축에 있어서도 다양한 공공 공간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데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미스는 독일시대와 미국시대를 불문하고 그의 전 이력에 걸쳐 지속적으로 사무소 건축을 계획하고 설계하였다. 주지하듯이 미스의 많은 개념들은 이미 독일시대 건축에서부터 초기의 아이디어가 시작되었던 바, 미스의 독일시대 사무소 건축을 공공 공간과 그를 형성하는 형태의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은 앞서 언급한 대표적인 미국시대 마천루들의 공공 공간을 이해하는 단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독일시대 사무소 건축 계획안들을 통해 미스의 건물의 형태 유형에 대한 시도들을 살펴보는 것은 훗날 플라톤적인 정제된 형태에 도달하기까지의 앞선 과정을 짚어보는 계기도 될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논문은 독일시대 미스 반 데어 로에의 사무소 건축의 형태 유형과 그에 따른 공공 공간의 형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1.2 연구범위와 방법

본 연구는 독일시대의 사무소 건축을 연대기적 순서에 따라 분석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이를 위하여 각 계획안들의 도면과 투시도, 포토몽타주 그리고 미스에 관한 문헌을 기반으로 분석하였다. 독일시대에 계획된 사무소 건축에는 실제로 지어진 것이 거의 없고 대부분 공모전에 제출한 계획안들로서 연구의 범위는 이들을 중심으로 진행할 것이다.

독일시대의 2개의 대표적인 실험적 마천루 계획안인 프리드리히가(街) 마천루(1921)와 유리마천루(1922)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 이유는 두 마천루 계획안들은 형태나 재료의 특성상 중요할 수는 있으나 공공 공간에 대한 계획적인 의미는 아직 발현되기 전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반면 순수 업무기능으로서의 사무소 건축뿐만 아니라 스투트가르트 은행(1928), 라이히 은행본사(1933), 크레펠트 공장의 행정동(1937) 등은 넓은 범위에서 업무시설로 볼 수 있다는 점과 그간의 미스에 대한 연구에서 이들이 많이 다루어진 적이 없었다는 점에서 분석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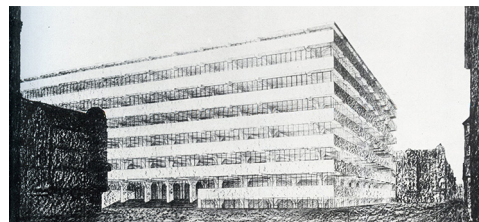
2. 본론

2.1 콘크리트 사무소 계획안의 분석

-진입공간과 ㄷ자형 형태

콘크리트 사무소는 미스가 1923년에 발표한 계획안으로서 현재 유일하게 남아있는 자료는 외부투시도 1장이다[Fig. 1]. 본 연구의 주제인 형태와 공공 공간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두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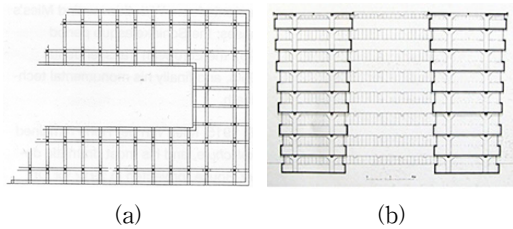
첫 번째 특징은 건물과 도시의 연결 지점으로서 정면 입구 앞의 진입공간이다. 입구의 존재는 이전에 발표되었던 두 마천루 계획안에서는 명확하게 표현되지 않았던 것이다. 앞선 두 계획안들에서는 유리라는 재료 자체에 대한 물성의 표현이나 투명성에 의미가 있었다. 반면 콘크리트 사무소 계획안의 투시도에서는 전면의 가로에서 내부로의 진입을 위한 건물 입구로의 연계성을 보이고 있다.



[Fig. 1] Concrete office building

계획안의 투시도는 매우 추상적으로 표현되었기 때문에 거리와 주변 건물들은 목탄의 검은 색 농담으로 표현되어 있어 보도와 도로의 경계가 표현되지 않았다. 하지만, 좌측의 건물 실루엣과 콘크리트 사무소의 거리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아 넓은 간격을 계산 입구 앞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도시의 가로에서 연계되는 건물 진입공간으로서의 공공 공간을 처음으로 나타냈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특징은 건물의 중정이다. 이는 건물 내부 사용자들을 위한 반 공공적인 외부공간으로서 한쪽은 ㄷ자 형태로 시작되고 반대쪽으로는 끝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고 계속되는 이어지는 선형의 방향성을 가진 좁고 긴 중정 공간이다.



[Fig. 2] Concrete office building
(a) Plan by Seo Hyun (b) Section by D. Neumann

D. 노이만이 작도한 단면도와 서현이 작도한 평면도 (Fig. 2)를 통해 건물의 매스가 규정하는 내향적인 중정이 생성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 중정의 의미를 콘크리트 사무소 내부의 투명성 구현을 위한 방법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2], 여기에서는 2개의 선형 볼륨들 사이에 건물의 사용자들을 위한 반 공공 공간을 생성했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 같은 ㄷ자 형태가 규정하는 중정은 훗날 발표되는 알렉산더 광장 계획안에서 하나의 유형으로서 다시 나타남을 뒤에서 볼 수 있다.

2.2 스튜트가르트 은행 계획안의 분석

-공공 공간의 배경으로서 —자형 형태

스튜트가르트 은행(1928)은 폴 보나츠(Paul Bonatz)가 설계한 스튜트가르트의 기차역의 인근 대지를 대상으로 한 공모전에 제출된 계획안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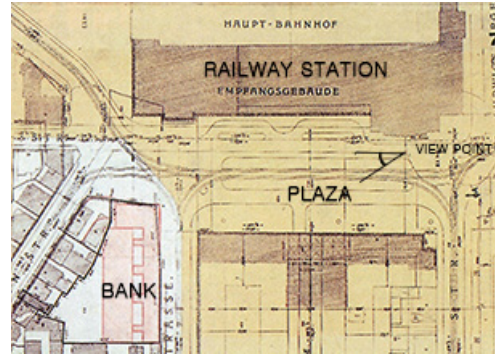
미스가 능숙하게 즐겨 사용하였던 수법인 포토몽타주 투시도(Fig. 3)를 살펴보면, 기차역 앞으로 지나가는 전차와 바빠 움직이는 사람들로 인해 광장은 단순한 넓은 외부공간이 아니라 도시의 활기가 넘치는 공공 공간의 풍경을 담고 있다.



[Fig. 3] Perspective of Stuttgart bank

콘크리트 사무소(1923)에서는 추상적인 표현으로 인해 건물 자체가 더 강조되었다면 이 포토몽타주에서 나타나는 스튜트가르트 은행은 도시의 광장에 면해 있으면

서 주변 건물과 사람들의 삶 속에 공존하는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다.



[Fig. 4] Site plan of Stuttgart ban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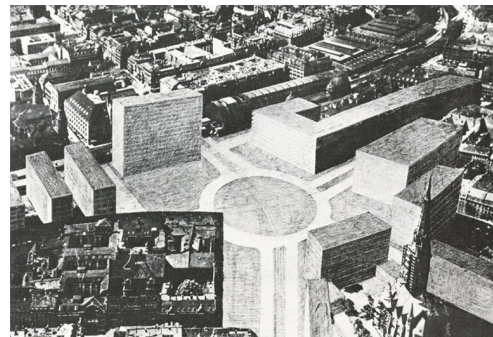
유리 커튼월 입면과 심플하고 강력한 직사각형의 —자형 형태는 주변 건물들에 비해 간결하게 처리되어 주변 경관의 일부처럼 배경으로서 도시 맥락에 자리 매김하고 있다.

배치도(Fig. 4)에서 보듯 건물 주변에 공공 공간이 있을 경우 개방된 시야로 인해 더 멀리서도 사람들에게 시각적으로 인지될 수 있음을 활용한 포토몽타주라고 할 수 있다.

2.3 알렉산더 광장 계획안의 분석

-대규모 공공 공간과 2가지 유형의 사용

알렉산더 광장 계획안(1928)은 스튜트가르트 은행과 같은 해에 당시 베를린의 도시계획을 맡고 있던 마틴 바그너(Martin Wagner)가 개최한 베를린의 알렉산더 광장 재개발 공모전에 제안한 것으로 미스에게는 최초의 도시 계획 규모의 설계 프로젝트였다(Fig. 5).



[Fig. 5] Photo montage of Alexanderplatz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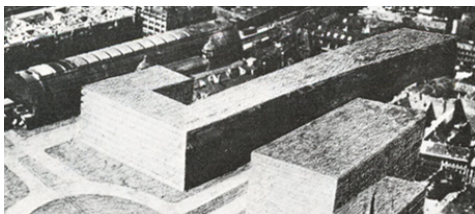
공공 공간으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중앙에 자리한 원형의 알렉산더 광장과 그 주변의 공간이다. 옹모했던 다른 건축가들의 계획안이 대부분 알렉산더 광장을 원형으로 둘러싸는 배치를 한 것에 반해 미스의 계획안에서 건물들은 원형의 알렉산더 광장을 두고 훨씬 더 뒤로 물러나 배치되어 있다[3]. 즉, 광장을 형태 그대로 둘러싸거나 길을 따라 건물들을 일렬로 배치하는 전통적인 도시계획적인 방법 대신 알렉산더 광장의 주변도 넓게 개방해 줌으로써 훨씬 더 큰 규모의 도시 공공 공간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해서 형성된 건물들의 진입공간을 도시의 광장과 연계하여 도시와의 공간적 소통을 꾀하면서 더 넓어진 공공 공간으로 인해 알렉산더 광장과 각 건물의 시각적 인지도를 동시에 높이는 것을 의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주목할 점은 바로 유형의 사용이라고 할 수 있다. 미스는 당시 새로운 형태의 창조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1928년의 그의 언명에서 알 수 있다.

“나는 형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형태를 목적으로 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뿐입니다.”[4]

알렉산더 광장 계획안(1928)에는 10여 동 이상의 건물이 있는데 이들은 크게 수직적 육면체의 타워 유형과 저층-선형의 2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저층-선형은 다시 ㄷ자 유형과 —자형 유형으로 나뉜다.

이렇듯 미스는 기존 베를린의 도심이 다양한 고전주의 양식으로 밀집된 가운데 알렉산더 광장을 중심으로 하는 여러 동의 건물들과 함께 구성하는 공공 공간을 계획함에 있어 여러 형태들을 더하는 대신 타워 유형과 저층-선형의 2가지 유형으로 계획하였다. 이를 통해 흩어져 있는 건물들 간의 통일감을 부여하면서 건물 자체 보다는 단순한 건물들이 광장을 부각시키는 커다란 벽과 같은 역할을 하면서 그들 사이에 개방되어있는 공공 공간 즉, 알렉산더 광장을 더 부각시킬 수 있었다.



[Fig. 6] Letter U Type building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저층의 ㄷ자형 형태다. 이는 콘크리트 사무소(1923)에서 처음 나타났던 ㄷ자형 형태가 반복적으로 다시 나타난 유형으로 볼 수 있는데, 알렉산더 광장 계획안(1928)에서는 타워 유형 바로 우측에 (Fig. 6) 나타나 있음을 알 수 있다. 한쪽 부분이 짧아져 변형된 모습은 대지의 형태나 또 다른 필요에 의해 건물의 길이를 줄여야만 하는 조건에 대응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여기서 입면의 재료는 유리 커튼월을 사용하였지만 ㄷ자형 형태로 인해 생기는 좁고 깊은, 한 방향으로 개방된 중정도 다시 나타났음을 볼 수 있다.

2.4 프리드리히가 오피스 계획안의 분석

-동일한 형태와 위계의 문제

미스는 이미 1921년에 발표했던 프리드리히가 마천루 프로젝트와 동일한 대지에 베를린 교통국의 주최로 1929년에 다시 열린 공모전에 다분히 멘델스 존의 영향을 받은 계획안을 제출하였다[5].

첫 번째 계획안의 평면도와 8년 뒤에 다시 제출한 평면도를 비교해 보면(Fig. 7), 두 계획안 모두 대지의 3면에 대하여 동일한 조건으로 설계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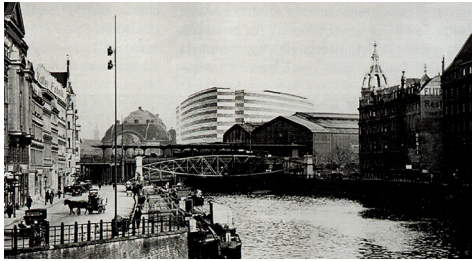
[Fig. 7] Friedrichstrasse office
(a) Plan in 1921 (b) Plan in 1929

아마도 처음부터 미스는 대지 주변부에 대한 위계를 크게 고려하고 있지 않은 듯이 보인다. 1929년 계획안의 평면에서도 완벽하게 동일한 선형의 사무실 동이 3면에 일정하게 둘러싸고 있고 이는 원경으로 처리한 포토몽타주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Fig. 8). 즉, 이 사무소는 형태적으로 3면의 위계가 동일한 것으로 설계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공공 공간은 특별히 다루어지지 않았다. 3개의 곡선 매스가 삼각형 대지를 둘러싸고 있는 가운데에는 코어들과 삼각형 홀이 차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 계획안을 언급하는 이유는 이 후 발표되

는 계획안들에 사용되는 완곡한 곡선의 형태가 여기서 처음 나타났으며, 곡선 형태와 -자형 형태가 유형화 되면서 위계에 따라 건물을 구성하는 형태를 점점 더 분절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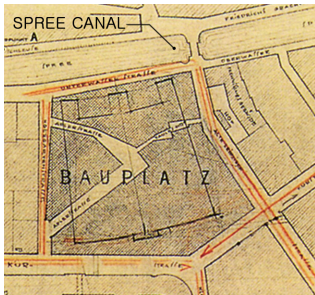


[Fig. 8] Photo montage of Friedrichstrasse office

2.5 라이히은행 본사 계획안의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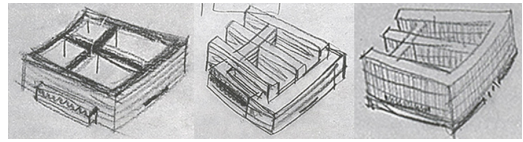
-위계에 따른 전면과 후면

라이히은행 본사(1933)는 나치정권 하에서 미스가 근대건축을 제3제국의 건물에 적용하려고 한 시도로서[6] 프리드리히가 오피스 계획안(1929)에서 보이지 않았던 대지 주변 맥락의 위계와 그에 따른 형태의 변화가 나타났다.



[Fig. 9] Site plan of Reichsban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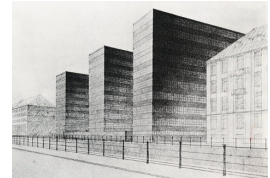
대지는 한쪽으로 슈프레 운하를 면하고 있으며 반대 쪽으로는 3개의 길이 교차하는 베를린의 도심을 향하고 있다. 그러므로 건물의 정면은 사람들의 이동이 가장 빈번한 쪽에 두었다. 미스는 멘델스존의 쇼켄(Schocken) 백화점의 영향을 받아 프리드리히가 오피스 계획안(1929)에 사용했던 완곡한 곡선 형태를[7] 정면에 배치하고 중심축을 갖는 대칭형 평면을 제안하였다.



[Fig. 10] Preliminary Sketches



(a)



(b)

[Fig. 11] Reichsbank

(a)Final plan (b)Spree canal side perspective

초기 스케치들의 변화를 보면 전통적인 폐쇄형 중정으로 시작하여 곡선의 정면 매스는 그대로 유지한 채 3개의 -자형 매스들을 사용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중정을 형성하는 시도를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슈프레 운하 쪽으로 최대한 많은 조망을 얻기 위해 -자형 형태들이 연장되어 나가면서 후원을 개방하였다(Fig. 10,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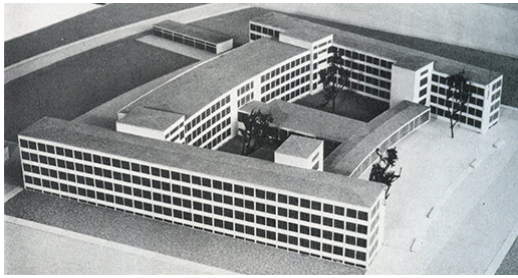
이전 계획안들과 달리 건물 전면에 넓은 공공 공간을 두기 어려웠기 때문에 라이히은행 본사 계획안(1933)에서는 곡선 형태와 대지 경계선과의 사이에 생기는 간격을 활용하여 작지만 전면에 진입을 위한 공공 공간을 형성하고 있다.

2.6 크레펠트 공장 행정동 계획안의 분석

-매스의 분절과 공공 공간의 위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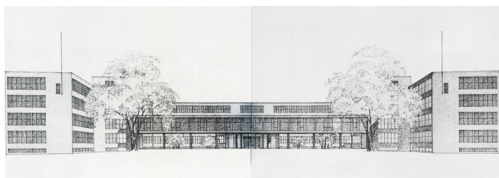
크레펠트 공장 행정동(1937)은 미스가 1937년 미국으로 이주해 가기 전 독일시대의 마지막 작품이다. 이 계획안을 1933년의 라이히은행 본사(1933)의 단순한 변형이라고 보는 견해는 그 이유를 1937년에 미스가 베를린에서 보낸 시간이 매우 적고 사무실 운영은 오랜 동업자인 릴리 라이히가 맡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8).

하지만 원래 가구와 텍스타일 디자이너였던 라이히에게 미스가 건축 디자인을 완전히 맡겼다고는 확신할 수 없다. 두 건물은 모두 부채꼴 방사형의 대칭 구성을 하고 있으나 동일한 높이의 매스로 구성된 라이히은행 본사(1933)와는 달리 매스의 각 부분의 높이를 달리하여 형태와 공간의 위계를 더욱 섬세하게 다루었다는 점에서 크레펠트 공장 행정동(1937)은 새롭게 분석할 여지를 갖고 있다.



[Fig. 12] Model photo

크레펠트 공장 행정동(1937)의 공공 공간은 전면 진입 공간과 중정 그리고 넓게 펼쳐진 후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모형사진(Fig. 12)에서 보듯이 전체 구성은 양옆의 긴 T자형 선형 매스 사이를 완곡한 곡선의 매스가 연결하고 있다. 이 3개의 매스들을 연결하는 낮은 T자형의 매스가 로비공간이다. 양측의 선형 매스가 대칭을 이루며 돌출되어 있고 T자형 로비는 뒤쪽으로 후퇴되어 있어 방문자를 받아들이는 진입 공간을 연출하고 있다. 이는 라이히은행 본사(1933)의 경우처럼 곡선 매스를 전면부에 놓아 돌출되도록 했던 것과는 상반된 접근이다.



[Fig. 13] Perspective from entry yard

여기에 덧붙여 T자형 로비의 1층은 필로티와 전면 유리에 의해 개방되어 있어 정면의 주출입구 뿐 만 아니라 로비 너머의 중정도 진입공간과 시각적으로 연계되어 있어 공공 공간의 위계에 따른 깊이감을 섬세하게 조절하고 있다(Fig. 13). 중정을 둘러싼 매스의 높이를 서로 달리하여 동일한 높이로 둘러싸여 폐쇄된 라이히은행 본사(1933)의 중정에 비해 한층 더 개방감을 높이고 있다.

3. 결론

지금까지 미스의 독일시대 사무소 건축에 나타나는 형태 유형과 공공 공간을 분석한 결론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Table 1).

독일시대 사무소 건축의 형태 유형의 변화 과정은 다음과 같이 두 시기로 구분된다.

첫 번째는 콘크리트 사무소(1923)에서 나타난 T자 형태와 슈투트가르트 은행(1928)의 T자 형태가 알렉산더 광장 계획안(1928)에서 타워 유형을 포함하여 3가지 유형으로 정리되는 시기이고 두 번째 시기는 프리드리히가 오피스(1929)에 처음 시도된 곡선 매스가 라이히은행 본사(1933)에서 전면의 위계를 표현하는데 사용되고 마지막으로 크레펠트 공장 행정동(1937)에서는 분절된 T자 유형과 함께 다양한 공공 공간을 구성하는 하나의 유형으로 반복 사용되기까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형태의 시도에 따른 공공 공간의 구성 변화를

[Table 1] Conclusion

	Concrete office building	Stuttgart bank	Alexanderplatz	Friedrichstrasse office	Reichsbank headquarter	Krefeld administration building
Plan						
Mass						
Formal Type	U shape	I shape	U shape I shape vertical tower	3 curved shapes	1 curved shape 3 I shapes	1 curved shape 2 I shapes T shape
Entry space	○	○	○	×	×	○
Courtyard	△	×	△	×	○	○
Rear garden	×	×	×	×	△	○

보면 첫 번째 시기에서는 주로 전면의 공공 공간과 진입 공간에 대한 관심이 두드러진 반면 두 번째 시기에서는 중정(courtyard)이 발전되어 나타나면서 전통적인 폐쇄 형에서 시작하여 점점 개방되어 가고, 형태의 분절을 통해 명확한 후원의 위치기 건물 뒤쪽에 배치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독일시대 사무소 건축의 형태 유형과 그에 따른 공공 공간의 변화 과정은 미스가 일관된 계획 의도를 지속적으로 적용하기 보다는 콘크리트와 커튼월 입면, 유형의 사용과 곡선 매스의 시도 그리고 열린 중정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방법론을 찾아가고 구축하는 시기였음을 알 수 있다.

분석한 계획안들의 공공 공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미스가 말이나 글로 남긴 것이 거의 없어 그의 언설을 통해 명백한 사실에 기반을 둔 계획 의도를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었고 이는 앞으로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독일시대의 계획안에 머물렀던 형태 유형과 공공 공간에 대한 생각을 바탕으로 미스는 미국으로 이주한 후 마침내 뉴욕 씨그램 빌딩(1958), 시카고 연방센터(1959~1974), 토론토 도미니언 센터(1963~1969) 등을 통해 마천루들로 이루어진 공공 공간을 발전시키고 실현하게 된다. 이에 대한 연구는 차후 과제를 통해 진행될 것이다.

[7] Jean-Louis Cohen, *Mies van der Rohe*. p.73, E&FN Spon, 1996.
 [8] Frank Russel, *Mies van der Rohe European works*. p.84, Academy Editions, 1986.

김철환(Chul-Hwan Kim)

[정회원]



- 1996년 2월 : 홍익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과 (공학사)
- 2006년 6월 : 프랑스 파리-벨빌 국립 건축대학 (건축학석사)
Ecole Nationale d'Architecture Paris-Belleville
- 2013년 3월 ~ 현재 : 한라대학교 건축학부 조교수

<관심분야>
건축설계, 건축계획

References

[1] Young-Hoon Jeon, Kwang-Suk Oh, Woong-Hee Ahn, "A Study on Tectonic Characteristics of Columns in Mies van der Rohe's Architecture in Germany", Journal of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Vol.25 No.1, pp. 181, 2009.
 [2] Seo Hyun, "A Study on a Practical Application of Transparency of Glass Appeared on Architecture of Mies van der Rohe", Journal of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Vol.18 No.6, pp. 74, 2002.
 [3] Frank Russel, *Mies van der Rohe European works*. p.46, Academy Editons, 1986.
 [4] Mies van der Rohe, "Uber die Form in der Architektur", In: Die Form, 2. p.63, E&FN Spon, 1927.
 [5] Luis Fernandez-Galiano, *Mies van der Rohe Berlin/Chicago*. p.25, Arqitectura Viva, 2001.
 [6] Richard Pommer, "Mies van der Rohe and the political ideology of the Modern Movement in architecture", p.118, The Museum of Modern Art, 1989.